



“ The 배려하고 The 존중하면 The 행복한 송정 ”

■ 자유, 민주, 정의의 역사 4·19 혁명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절정을 이룬 학생들의 일련의 반부정, 반정부 항쟁이다. 정부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 시키면서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12년간에 걸친 장기 집권을 종식시키고, 제 2공화국으로 출범을 보게 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혁명으로 규정하여 4월 혁명으로 불렸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이를 의거로 규정하여 일반화되었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혁명으로 환원되었다.

4.19 혁명은 처음부터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 아니라,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 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하여 집단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변전하고 발전되어 나타난 하나의 결과적 현상이었다. 4.19 혁명은 한국의 정치 발전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기록한 큰 사건이었다.

■ 과정 및 결과

- ▶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
-학생과 시민이 주축이 되어 부정선거와 자유당 정권에 항의 하였는데, 시위 도중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숨진 후 바다에 버려졌다가 4월 11일 마산에서 발견되자 4월 19일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대됨
- ▶ 이승만 대통령은 시위를 공산주의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하여 폭력으로 진압하자 교수들도 시국 선언을 하는 등 이에 동참하게 됨
- ▶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됨

■ 의의

- ▶ 4.19 혁명은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무능, 독재, 가난과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항거였으며, 이 항거가 부정선거를 계기로 폭발하여 민주 혁명으로 승화한 것이다. 4.19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 아니라 ‘미완의 혁명’으로 아직도 진행형의 혁명이며,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과 1987년의 6월 항쟁도 4.19 혁명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19 혁명은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 인권, 정의, 사회 복지, 공동체적 협동의 나라, 민족 자존의식 그리고 통일 국가로 만들려는 이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